

에서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柱頭……各柱上과 各柱間 平昌枋과 引枋사이 에 位置하고 있다.

굽이 曲面으로 되고 浮石寺無量壽殿의 遺例와 같은 굽받침이 없는

點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굽받침이 없는 例는 鳳停寺極樂殿에 遺

形을 남기고 있다①

다, 檐遮……長二·八二寸, 幅三·五分 端은 直線이고 下端은 丸線이

고 上下線은 直線으로 마치 鮮初 多包棋包의 檐遮를 連想케 한다.

端面이 垂直인 點은 鳳停寺極樂殿의 것과 같다.

람, 架檣……八角隅에 立柱하고 柱頭를 놓고 幅六·五分之 平昌枋을

짜돌렸고 그 아래로 幅六·三分의 空間을 두고 그 아래에 六分之 引

枋下柱左右에 벽선을 세우고 기둥 아랫몸에 七分높이의 下枋을 짜

돌렸다. 그 間에 分閣門(素文)을 내었는데 獅子形(?) 자물쇠를 채

었다.

以上 概略의 인 值數를 紹介하였다. 極히 斷片의 이어서 木造遺構와의

比較는 어러우나 全貌의 對照는 後人에게 미루고 여기서 期待하고 싶은

것은 이 遺構를 擴大하면 各部分間에 어떠한 比率를 갖고 있겠느냐 하

는 점이다. 가령 十倍를 擴大하여 現存 어느 遺構의 크기만큼 되었을 境

遇 과연 그 비율은 現存遺構의 比率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의 源流를 抽

出할 수 있겠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하고 싶은 것이다.

羅代의 遺構 特別 이와 같은 九世紀의 樣式이 十三世紀頃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나 의 問題를 檢討할 價値가 있다고 본다. 義城塔里石塔,

鐵原楓川地方의 石造物②, 其他 서울大博物館所藏의 塔蓋石 등을 이러한

意味에서 再檢討되었으면 한다.

註

① 杉山信三「高麗末朝鮮初の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一八五頁

② 同書插圖二參照

善山海平洞 石造如來坐像

秦 弘 燮

慶尙北道 善山郡 海平面 海平洞 보전部落에 近來에 新築한 寶泉寺

①라는 小庵이 있고 그 後崗에 臺座와 光背가 具存한 石佛坐像 一軀가 있

다. 古蹟調査資料에 海平洞에 石佛坐像 一軀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어

있는데② 報古된 石像의 樣式과 彫刻은 그 記錄으로 보아 現存한 石佛

과 같으나 다만 높이가 四尺으로 되어 있는데 이 石佛은 臺座以下가 埋

沒되었던 것을 數年前에 發掘하여 現在와 같은 狀態로 露出시켰던 까닭

으로 前揭 報告文에는 發掘前의 높이만 記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善山地方은 舊一善郡으로 大正初년부터 古墳, 郡治址, 佛敎遺蹟 等の

調査가 本格的으로 行해져서 報告書가 提出되었으나 여기 紹介하려는 石

佛에 關해서는 言及된 바 없다.

本石像은 前述한 바와 같이 近來에 發掘된 것임으로 埋沒되었던 臺座以

下는 比較的 保存狀態가 良好하나 佛體나 光背에는 若干의 損傷과 銃彈

痕이 있고 더욱이 顔面 特別 鼻目이 眊(세)멘으로 後補된 것은 本石佛의 致命

傷이 아닐 수 없다.

또 若干 赤褐色을 띤

花崗石 石質이 弱한

탓으로 全面的인 風

化作用을 이르고

있으니 例컨대 光背

에 있는 化佛香爐를

爲始한 文樣은 不分

明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全體의 均衡



은 매우 아름답다우며 典型的인 新羅佛의 形態를 繼承하고 있으며 部分的으로도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다.

좀더 자세히 細部를 觀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基本形態는 八角形의 臺座위의 釋迦如來坐像으로 別造된 身光이 背後에 세워 있다. 地臺石(一邊 一五·一cm)은 方形인데 四隅에 徑五·五cm 深三·五cm의 圓孔이 뚫려 있다. 이 위의 下臺石부터는 八角形을 이루고 있는 下臺石各面에는 眼象이 있고 眼象兩側에는 雲文과 비슷한 彫刻이 附加되어 있음은(下圖參照) 特色있는 表現의 하나이다. 이 위에는 귀꽃이 있는 復瓣蓮花가 各角마다 하나씩 있다. 中臺石도 八角인데 모두 隅柱가 表現되었는데 左右兩側面과 後面에는 花枝를 두고 正面에는 蓮花上的의 如來坐像을 他四面에는 蓮花上的의 飛天像을 各各陽刻하였다. 中臺石에 佛敎像이나 香爐같은 彫刻이 있는 例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正面만을 避하고 左右와 後面에 花枝를 둔 것도 異例라 하겠다. 上臺石은 半球形으로 重瓣蓮花 十六葉이 彫刻되어 있다.



如來像은 通肩 降魔觸地的 坐像인 바 前述한 바와 같이 顔面中央이 破損되어 시멘트로 後補되었고 右外에도 右耳가 破損되었으며 左耳端은 아주 切斷되었다. 頭髮은 明瞭한 螺髮로 表現하였으며 顔面의 모텔링은 볼에 살을 두지 않아서 唐代 佛像과는 全然 印象이 다르다. 목은 比較的인 데 뚜렷한 三道가 있다. 腹前에는 衣紐가 보이며 通肩한 衣紋이 風化로 인하여 明瞭하지는 못하나 原來는 相當히 優麗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지금도 大體의 衣紋線은 남아 있어 比較的인 衣紋을 볼 수 있다.

背後에는 一枚石으로 舟形光背가 세워졌는데 頂部에 若干의 損傷이 있고 全體적으로 磨滅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은 거의 完存하다. 光背에는 頭身兩光이 二重 圓圈으로 各各表示되었는데 頭光에는 中心에 蓮花文이 있고 그 周圍間地에는 寶相花가 陽刻되었으며 身光內에는 火陷文같이 보이는 文樣이 있다. 이와 같은 頭身光 周圍에는 兩側 下部에 各各 香爐一具가 있고 그 위에 蓮花上的의 坐像인 化佛이 各二軀씩 있으며 頂上에는 亦是 蓮花에 三尊坐像이 陽刻되었다. 周緣을 따라서는 다른 例나 마찬가지로

가지로 火焰文이 있는데 樣式은 通式을 따르고 있으나 彫刻은 軟弱해졌다.

善山地方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많은 佛敎遺蹟이 있으니 이만한 佛敎像이 있을법도 한 일이다. 本石像은 光背의 香爐나 中臺石의 花枝나 下臺石 眼象의 特異한 樣式等 部分的으로 特色있는 表現을 보이고 있는 點은 特徵이라 하겠다. 像容에 있어서도 整頓된 形態를 보이고 있으며 特別 顔部의 表現은 統一時의 通式보다는 若干 高古한 感覺을 준다. 以上에서 보면 本像의 造像年代를 八世紀後半으로 봄이 妥當할까한다.

本像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地臺石 一邊長 一五·一cm 臺座高 一〇·九cm 佛身高 一三·三cm 頭高 五〇·cm 膝幅 九·七cm 膝厚 六·一cm 光背高 一六·七cm

끝으로 本石像을 發掘한後에 佛閣을 新築하였는데 그 柱礎는 羅代의 礎石을 使用하고 있었다. 果然이 附近에는 寺址로 推定되는 地區가 있고 礎石이 散在하고 있어 羅代의 寺刹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그러나 瓦當은 發見된 일이없고 하나 再調査가 必要할 것이다.



註

① 이寺名은 古來로 傳하는 寺

名이 아니고 새로이 지은 것이라 한다.

② 古蹟調査資料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全高四尺兩膝頭間三尺ニシテ顔面ニ小破損アル外完全ナリ又高サ四尺ノ略馬蹄形ノ光背アリ光背ニハ火焰及小佛四體彫刻 シアリ라 있다. 膝幅ト一致하고 있으며 光背의 彫刻도 비슷하다. 이 記述로 보아 顔面損傷은 그다지 크지 않는 모양으로 그復原이 期待된다.

青磁雲鶴文大接

孟 仁 在

舊年末에 南行했던 同人 몇분과 함께 全州市多佳山房主人 林鍾錫氏의 案内로 同市中央洞 廉東贊氏宅에서 過限한 것인데 近來全州地方에서 出土한 것으로만 傳할뿐 出土地는 明確치 않다. 높이 七·六cm 지름 一九cm의 通常的인 크기지만 內面全面이 象嵌된 雲鶴文으로 채워진 것은 이 大接의 獨特한 點일 것이다.

(1) 內面은 바닥에 날개를 활짝 펴고 C字形으로 꾸부러진 목을 엮어서로 反對方向으로 목을 빼고 있는 蟠結狀의 雙鶴이 整然히 圖案化되어 있다. 黑·白土象嵌의 가는 線은 鶴의 平面圖처럼 나타나 있다.

器面四方에는 네마리의 飛鶴이 黑·白으로 象嵌되어 있다. 이 鶴들은 엮바뀌어 天·地를 向하고 있으며 木은 S字形으로 뿔쳐 있고 白土의 羽毛表出은 靑空에 浮上한 민들레씨를 聯想케 한다.

이 鶴文間의 全面에는 垂直雲文이 가득차 있는데 約 六十五片의 白土雲文은 口邊가까이 一面이 넓어질수록 크다. 口緣에는 唐草文帶가 白土로 象嵌되어 있다.

(2) 外面四方에 圓圈을 黑·白土로 象嵌하고 그 안에 한송이씩의 牡丹折枝를 白花黑葉으로 嵌入하였다. 圓圈의 間地에는 寶相唐草文을

線彫하고 이에 白土를 嵌入 文樣을 바탕 그대로 逆表出시켰다. 口緣에는 內緣에서와 같은 唐草文을 白土象嵌하였고 外底 돌레인 蓮瓣帶를 黑·白線으로 嵌入하였으며 外底엔 세개의 큼직한 珪石이 남아 있다.

全面에 釉水裂은 거의 없으며 特히 內面의 釉面은 沈靜한 碧玉色을 띄고 있어 秘色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다. 外面의 釉色은 푸른 빛이 若干 減殺되어 있으나 釉裂이 없는 點에서는 內面과 함께 거의 完全無缺하다고 할 수가 있다.

三

이 大接의 出土地는 勿論 明白치 않으나 그 產地는 出土地에서 멀지 않은 扶安窯로 생각할 수가 있다. 全體의 形狀은 從來 國寶로 되어 있던 國立博物館의 大接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보다 一—二cm쯤 작은 듯하나 器壁을 이루는 弧線은 부풀어 있으며 釉面은 더욱 淸冽하다. 外面의 裝飾法이나 아래로 單 鷲이라던가는 通例의 大接들과 다를 바 없으나 內面의 裝飾은 雲鶴을 主題로 한 點이 異例의 이며 雲文을 背景으로 한 鶴文을 圓圈等으로 孤立시키지 않아 自由롭게 配置한 點은 非圖案的인 裝飾效果를 나타내어 비단처럼 화려하다. 이 大接은 그 品格으로나 技巧으로나

